

조선업 업황 점검회의  
2018년 10월 18일(목) 14:30  
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2018년 10월 18일(목) 14:30 이후  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2018. 10. 18.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인사 말씀

- 여러분 반갑습니다.  
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- 오늘 이 자리는,  
최근 조선업황을 점검하고  
국내 주력 산업의 큰 축인  
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 
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.
- 바쁘신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,  
여러 전문가분들과 정책금융기관 담당자분들께  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## 주력 산업의 위기

- 그간 우리의 주력산업은  
경제성장 및 고용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,  
최근 성장-고용간 디커플링(Decoupling) 현상이  
발생하고 있습니다.

○ 우리의 주력산업은

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 
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위협이 크고,  
Digitalization 등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 
적응해야 하는 도전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

□ 글로벌 금리상승과

미국·중국의 통상갈등 장기화 등으로,  
앞으로도 단시간에 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\*을  
끌어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 
현재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라 생각됩니다.

\* 잠재성장률(OECD) : ['18년] 3.17% → ['20년] 2.99% → ['32년] 1.98%

총요소생산성 : ['91~'00년] 3.5% → ['01~'10년] 3.0% → ['11~'16년] 1.0%

## 조선업 현황 및 전망

□ 오늘의 주제인 조선업 현황을 살펴보면

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주량\*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 
국내 조선사의 수주 비중\*\*도  
일정 부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\* '18.9월 기준 전 세계 발주량은 2,114만CGT이며, 전년 동기 대비 12.9% 증가

\*\* 수주 점유율 변화('17.9월 → '18.9월 기준)

: [한국] 29.8→45.0%, [중국] 33.8→30.8%, [일본] 11.0→11.5%

- 하지만, '16년 수주 절벽에 따른  
건조량 부족의 영향은  
부품·기자재 업체들로 이어져,  
이들 업체들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- 船價 회복 지연, 무역분쟁으로 인한 교역감소,  
강제가 인상 등의 리스크요인도  
상존해 있습니다.
- 또한, 최근의 수주 호황이  
LNG선 등 특수에 따른 일시적 상황인지  
장기 발주량 증가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 
조선사별 경영전략도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.
- 따라서, 중국·싱가폴 등  
경쟁국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 
국내 조선산업의 높은 품질·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 
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주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,  
- 조선산업 전체적으로도  
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 
적정 수준의 효율화된 생태계를  
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□ 이러한 인식하에  
조선업 전문가 및 관계기관 여러분들을 모시고  
최근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의  
글로벌 수주동향과  
그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려 합니다.

○ 또한, 선박 탄소배출 규제,  
평형수 규제 등에 따라  
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살펴보고,

○ ICT·스마트 선박 등 혁신역량에 대한  
우리 조선산업의 준비상황도  
점검하겠습니다.

○ 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간의 상생협력 방안과  
기자재업체의 제작금융·보증 등의  
애로사항도 점검하고자 합니다.

□ 이러한 의견 청취를 통해  
우리 조선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 
정책금융과 구조조정의 방향을  
재정립하고자 합니다.

##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유

□ 얼마 전 저는

자동차 부품업체와

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.

○ 많은 업체들로부터

해외판로 개척 등 위기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 
경영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

- 해외수출 관련 정책금융의 지원방안을  
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○ 대다수 업체들에게서

은행권 여신의

만기연장, 신규대출 등이

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

-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의

생산적 금융에 대한 역할에 대해

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

□ 금융당국은

앞으로도 지역 산업현장을 지속 방문하고  
주력산업 업체·전문가들의 의견을  
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,  
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 
금융당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.

- 또한, 11월경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 
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 
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 
현장방문도 계획 중입니다.

**마무리 말씀**

□ 여러분,

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 
일시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
또한 정부부처 혼자만의 노력으로  
이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.

- 정부-기업-연구기관간의 협조,  
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며,  
금융권·자본시장 등의 금융지원과 재정지원간의  
정책조합(Policy Mix)도 필요한 사항입니다.
- 하지만,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과제이며  
이러한 점에서 금융당국도  
금융이 거저먹는 자(Taker)의 역할이 아니라  
만드는 자(Maker)\*인 기업을 지원하는 주체로  
'실물경제의 방향타 역할'을 다하도록  
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
\* 「MAKERS AND TAKERS」 라나 포루하 著

☐ 감사합니다.